

|초등 저학년| 〈수영을 할 수 있게 되면〉

잭 웅 지음 | 신형건 옮김

★〈보스턴 글로브-혼 북 상〉 수상작 ★〈캐나다 총독상〉 아동문학 부문 수상작 ★〈에즈라 잭 키츠 상〉 최종후보작
★〈커커스 리뷰〉 올해의 책 ★〈퍼블리셔스 위클리〉 올해 최고의 책 ★〈뉴욕공립도서관〉 올해 최고의 책
★〈캐나다 아동도서센터〉 최고의 어린이 책 ★〈혼 북〉 팡파르 선정도서 ★〈아마존〉 이달의 책 ★〈북페이지〉 추천도서



“수영을 배우는 것은 우리 삶을 탐색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매우 비슷함을 일깨운다.” -〈스쿨 라이브러리 저널〉

“독창적이면서도 사랑스럽게 마무리된 파스텔과 수채화 일러스트는 시적인 산문과 더불어 수영의 즐거움을 마주하는 수많은 아이들을 보여 준다.” -〈퍼블리셔스 위클리〉

“어디에 있던 수영하는 모든 이들이 자연을 한껏 포용하도록 영감을 준다.
수영과 그것이 풀어내는 마법의 경험에 대한 멋진 러브레터.” -〈커커스 리뷰〉

“작가의 유쾌한 시각은 매혹적이다. 놀랍다. 훌륭한 그림책이다.” -〈북페이지〉

『수영을 할 수 있게 되면』에는 다양한 나이, 피부색, 신체적 특징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한다. 그들은 물 위에 누워 동등 떠다니고, 잠수를 하며 탐험하고, 운하 위의 다리에서 다이빙을 한다. 두려움을 극복하고, 대담하게 이겨 내며 목표한 곳에 도달한다.

잭 웅의 자전적인 이야기이기도 한 그림책 『수영을 할 수 있게 되면』은 단순히 수영에 관한 책이 아니다. 이 책은 미지의 세계와도 같은 물속으로 몸을 던져 뛰어드는 용기를 말하는 책이며,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방법으로 물속을 헤엄치고 탐구할 자유가 있음을 말하는 책이다.

수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심어 줄 뿐 아니라,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의 가능성을 열어 준다.

읽기 전 활동

1. 수영을 할 수 있나요?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.
2. 빈 칸을 자유롭게 채워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.
: 내가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면 _____ 거야.
3. ‘물’ 하면 떠오르는 생각, 단어,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.

읽기 중 활동

1. 바다, 호수, 계곡, 수영장 등 여러분이 좋아하는 수영하는 장소는 어디인지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.
2. 수영을 할 때 누구와, 무엇을 하며 노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.
3. 책 속에서 나온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활동을 고르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.
4. 수영으로만 갈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요? 그곳이 어디일지 상상하고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.



읽은 후 활동

1.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?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.
2. “내가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면”으로 시작하는 시를 한 편 지어보세요.
3. 안전한 수영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.
4. 물놀이를 하면서 보았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떠올리며 그림을 그리고 풍경을 설명해 보세요.

